

구강보건교육에 있어서 교육재료 활용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의대 부속간호전문대학

정영숙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s in Dental Health Education.

Chung Young Sook

Junior Nursing Colleg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w can the educator help learners to learn? The old way was to tell learners as much as possible, passing on the educator's knowledge. Now the educator acts as a helper. She will organise experiences which allow the learners to do health behaviors, she may utilize instructional materials, she may write downsome questions for a group of learners to discuss. In all these ways the teachers is helping learning.

Some educators feel that they must do all the talking themselves. They feel that they are not really teaching the learners some new information, but this is quite wrong.

In fact if a educator gives a lecture and learners do not learn, then the educator is talking not teaching.

So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materials is much needed to be a learner education. And the selection of materials may be very important for the level of maturity of the learners in interest, complexity of ideas, opportunity for self-identification, speed of learners' ability to observe and length of concentration.

Author studied the several instructional materials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field of dental health education and also studied their values, limitations and considerations when they are used.

The learning activities are poster, puppet, model, mock-up, specimen, flannel board, chalk board, bulletin board, psychodrama, role play, field trip, exhibition, laboratory method.

I. 서론

건강에 관한 지식을 교육이란 절차를 통해서 소원되는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행동체제로 이끄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보건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행동하여 이것

보건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미국 미네소타대 학보건 교육과 교수인 Ruth E. Grout박사는 “보건교육이란

을 해결함으로서 그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기회와 다양한 교재의 이용이 필요된다. 또한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창조적 활동이 요구된다. 교육자는 학습기회를 제공할 때나 나타낼 때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학습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교육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에 구체성을 갖게하기 위해 미리 이러한 기회와 수단들을 제공하고, 재조정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의 학습기회들이 다양성 그 자체 만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된다. 학습기회의 다양성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덜어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다양한 학습기회를 이용하는 것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첫째는 다양한 목적에 대처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다양한 학생의 요구와 흥미에 대처하기 위함이고 세째는 다양한 갑각기관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이와같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재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보건교육에 있어 교재의 목적은 전강생활상의 문제 점들을 명확히하거나 처리하는데 필요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간접적으로 받는 활동적인 교육 경험을 갖게한다. 교재는 특별한 과목이나 학습의 영역에서 더욱 흥미를 일으키게한다. 더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한 지식의 배경이 이루어지며 계속적인 연구의 동기가 마련될 수 있다. 실습이나 훈련, 인식, 태도, 이해의 모든 것들이 교육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교육자는 사실에 대한 해설자로서만이 아니라 흥미를 개발시키는 자원자(resource person)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매체의 선정은 사실에 대한 단순한 예증으로서가 아닌 학습자의 흥미와 목적에 충족되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교육매체는 개인과 집단의 배경과 성숙정도에 적합해야한다. 또한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교재선택에 적

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

A. 교재선택의 주의점

1. 교재는 학습자가 원하고 필요되는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기술을 개발시키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계속적인 조사나 질문제기, 학습자를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도전이 되어져야 하며 학습자 자신에게 학습 활동의 가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와 습관,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적이기 위해서는 교재는 학습자로 하여금 생각과 느낌에 대한 질문, 읽기, 토의등을 일으키게 해야한다.

3. 교재는 다음과 같은 면에 있어 학습자의 성숙도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즉 흥미, 어휘력, 관찰능력의 속도와 집중기간, 생각의 복합력.

4. 모든 교재는 서술이 정확해야하며 세부내용에 걸쳐 신뢰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5. 가장 좋은 시청각매체는 각각의 교육경험을 위해 연구되어야 한다.

6. 교재는 형태, 내용과 구조면에 있어 질적으로 우수해야 한다.

B. 시청각교재의 형태

Dale은 시청각교재의 여러 형태의 교육적 경험을 분류했는데 그는 이 교재를 가장 가치가 크고 경험이 풍부한(즉 직접적이고 목적에 맞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학습과정에의 위치를 관련지어 정리했다. 학습에 있어서 가치성과 영구성 등을 관련지어 볼때 제일 낮은 것은 읽기, 쓰기, 강의와 같은 Verbal Symbol이다.

구강보건교육과 관련지어 예를 통해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시청각 교재의 형태	구강 보건 교육 경험
T.V.;	적합한 기회에 어떤 사실에 대해 소개하는 이야기 전달식에 대부분 의존된다. 학습자는 관람자이며 관찰과 학습의 정도가 다르게 된다. 학습자는 자신을 어떤 연극적 상황에 동일시 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 남은 인상이 오랫동안 초래될 수도 있다. 어떤 T.V. 프로그램은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시작되는 즉 불소화상수가 처음 가동되는 실제 현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
가 치—발생된 실제의 사건을 다룰 수 있다. 제한점—직접 경험을 이끄는 학습자의 참여가 결여된다. 현실과 어느정도 다를 수 있다.	
슬라이드, 라디오, 녹음; 한가지 감각만 자극하는 재료이며, 학습자는 귀나 눈을 통해 자극받는다.	슬라이드는 구강보건 교육에 가치성이 높으며 집중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된다. 치수와 같은 작은 조직은 치아구조를 더욱 깊히 이해하기 위해 확대되어 볼 수 있다. 또한 큰 물체

청자 혹은 시각경험의 특별한 면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흑판, 도표, 패도, 응관;
가 치—학습자의 특별수준에 도달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토의, 읽기;
학습자와 교사사이의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서 다른 시청각 재료와 함께 사용되어 왔으며 토의는 언어상의 표현 중 가장 좋은 형태이며 읽기는 다른 모든 학습방법에 기초되는 경험이다.

는 적당한 크기로 축소될 수도 있다. 도표상의 예는 불소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라디오 녹음은 방송되었던 것을 녹음하여 두었다가 적절한 시간에 교실에서 들려질 수 있다.

패도와 도표는 구강위생관리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설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매년마다 증가되어가는 충치발생율을 그라프로 보여줄 수 있다. 보다좋은 식습관을 갖기 위한 동기형성을 위해 식품중 당분함량을 도표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 조기 구강위생 관리비와 태만했을시의 후에 소요되는 구강관리 비용을 비교하여 원그라프로 표시할 수도 있다.

강의나 교재읽기의 사용은 구강보건 교육에서 아주 많이 이용되어 왔다. 강의는 효과적 시각자료가 수반될 때 만이 효과를 더 할수있다. 읽기를 통한 학습은 어떤 건강습관의 형성이 초래된 후 일때만 영구적이다. 예를 들면 치아를 손질하는 방법에 관한 팜프렛은 칫솔과 모형을 주고 시범하지 않는 한 거의 가치가 없다.

C. 시청각장치의 사용

시청각 장치는 개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된다. 이것 자체가 가르침의 실제적 업무를 떠맡는 것은 아니다. 학습과정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청각자료의 특성이 학습자에게 명확히 설명되어져야 한다. 만약 학습자가 한 실습자, 실행자가 되는 대신에 단순히 관람자, 혹은 조사자가 된다면 그때의 사고력은 학습상황에서 없어지게 된다. 만일 무엇을 보는데 있어 비판적인 태도가 형성되지 않고 개념을 선정하는데 있어 좋은 판단력이 배양되지 않는다면, 시각자료는 심한 낭용과 좋지 않은 교수(가르침)로 되고 말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적절히 사용될 경우는 시청각자료는 바람직한 개념형성에 기여하며 도호한 사실에 대한 흥미를 일으켜주고 학습된 것을 영구적이 되게 하여주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자료는 학습자에 의해 활동과 참여를 하게되며, 문제를 통해 생각하는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시키고 단어의 의미와 어휘를 증가시켜 준다. 경험의 다양성과 깊이는 학습자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여준다.

이에 저자는 구강보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재의 가치와 제한점 활용법등을 제시하여 각급수준의 구강보건교육에서 선택하여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현고찰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II. 본 론

A. 구강보건교육의 목표 및 목적

목표 :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구강관리 책임을 갖일 수 있는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갖도록 하기 위함.

1차적 목적 :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가치형성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기술을 갖도록 하기 위함.

B. 교재의 선택

중국 속담에 들으면 잊어버리고, 눈으로 보면 기억하고, 실제 행동을 하면 알게되고, 발견하면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교육자에게는 피교육자에게 언어적 수단만으로 가르치는 것은 제일 쉬운 일 이지만 이 방법은 학습자에게는 도움이 거의 안된다. 그러므로 언어적 수단만을 사용하는 대신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해 놓아야 한다. 이 활동들은 피교육자 중심의 활동으로는 창작글짓기, 실험실습, 조사, 체크리스트, 수집, 도서관이용, 구두보고, 설문조사 등이 있으며 교육자 중심의 활동으로는 시범, 현장시찰, 면접, 질의응답, 상담, 시사해설, 지도등이 있고, 재료 중심의 활동으로는 게시판, 전시회, 응관, 모형, 실물대모형, 포스터, 패도, 카렌다, 만화, 그래프, 지도, 이동식그림, 팜프렛 등이 있다. 이 많은 활동들 중 주로 피교육자 중심의 활동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육적 성취도가 높다. mctean은 아래와 같이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습득에 대한 공동계획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가) 피교육자와 교육자가 상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 피교육자의 목표나 목적에 따라서 과제를 고르게 부과하게 된다.

- (다) 개인차에 보다 나은 적응을 길러준다.
 - (라) 교육과정에 피교육자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 (마)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습득에 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사기를 북돋아 준다.
 - (바) 분위기를 보다 알찬 습득을 위해 조성해 나간다.
- (사)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협조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길을 열어준다.
- (아) 질의응답이나 문제해결 방법을 더욱 강조할 기회를 갖게 된다.
- (자) 배우는 피교육자에게 보다 큰 습득에 관한 만족을 갖다주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피교육자 중심의 활동과 재료중심의 활동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 교재선택에 있어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1) 예산한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교재로서 어떤 것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 (2) 현재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대상자가 호감을 갖는 교재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4) 각 교재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5) 교재들을 병용할 때 그들간의 상호보완적 상호효과를 낼 수 있는가?
 - (6) 어떤 교재가 대상자의 참여를 제일 많이 촉진시킬 수 있는가?
 - (7) 현재 지역사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가?
- 이상의 자료들은 그 상태가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이의 정보수집활동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C. 교재활용

- (가) 현지전학(학습자들이 어떤 과정이나 구조의 직접적인 경험을 얻기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

교육적 가치 :

- 직접 경험을 준다.
 - 동기유발과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다.
 - 더 깊은 탐구와 연구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효과적인 결론과 요약활동이 될 수 있다.
- 제한점 :
- 시간이 소요된다.
 - 복잡한 행정절차가 따를 수 있다.
 - 특별한 성숙수준에 있는 학습자에게는 너무 복잡할 수 있다.
 - 오락여행이 되어버릴 수 있다.

—학습자들의 인식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목적과 관련시키기가 어렵다.

바람직한 학습상황은 치과의원을 방문하는 것, 보건소의 치과방문, 칫솔이나 치약제조 공장방문 등이 있다. 식품제조공장, 식료품시장, 목장견학등은 건강유지를 위한 식품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해 준다.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1학년 정도에서는 현지 견학으로서 치과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전계획이 필요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학교전리를 떠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안전하게 학교에 되돌아오는 것의 책임이 인솔교사에 의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학부모 동의서, 교통편 출발과 도착시간 예정 등을 포함하여 학교당국에 의해 정해진 모든 규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현지전학시간은 보통 정상적인 학과시간내에 하는것이 좋다. 학교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있어서 좋다. 인솔교사는 여행을 지도하는데 있어 항상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요구되며 주의해야 할 물리적 정신적 위험요소를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지전학은 조직하는데 있어 준비와 계획에 학생을 참여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연구하고있는 특별한 문제의 해결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여행전 어떤 특별상황을 관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지전학은 사실과 이론의 이해를 더욱 돋독히 하도록 이끌어져야 한다. 학습자들은 새로운 경험의 결과로서 어떤 확실한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말일 현지전학이 교육적 가치에 있어 영구성이 있어야 한다면, 견학의 결과 얻어진 흥미, 관심, 결정점들에 관한 어떤 형태의 평가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보고서 제출이나 토의방법등으로 얻어질 수 있다.

(나) 실험

교육에 있어 실험적 방법이란 실제적 경험이 계획된 활동에서 이행되는 학습상황이다. 실험적 경험은 주로 어떤 과정을 해보고 어떤 결론에 도달해 불려고 하는 학습자 측면에서의 실험이다.

국민학교 수준에서의 실험적 방법은 구강위생에 있어 적절한 칫솔질 방법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교사는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내의 치과의원으로부터 치과위생사와 같은 적절한 사람을 활용하여도 좋다. 치면의 세균막에 염색하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해놓고 학생들 중 지원자 한 사람을 환자로 이용하여 그 학생의 치아에 머큐روم으로 염색을 한다. 그리고는 학생으로 하여금 치아를 완전히 칫솔질하여 세균막과 염색된것을 제거하도록 한다. 각각의 학생에게 칫솔과 치약을 주어서 치아를 손질하고 세균막과 염색된 것이 제거되었도록 한다. 관심을 계

속 갖도록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칫솔질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1주일동안 매일 아침 모든 아이들의 치아를 관찰한다. 아이들로 하여금 청결한 치아를 갖게되니 기분이 어떤가를 이야기하게 한다.

(다) 모형, 실물대모형, 표본

교육자는 구두상으로 교육할때 중요점을 예시하기 위해서 모형, 실물대모형, 표본등을 사용한다. 이것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히 해준다.

치아의 해부도는 2차원의 그림으로 보다는 3차원의 모형으로 더욱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치아의 모형은 상아질로서 알려진 치아위에 범랑질이 덮혀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치근관은 그림상의 두 선이 아니라 도판(통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치아의 실제 크기를 마음속에 연상시키기 위해서는 모형크기가 적절해야 한다. 이때 치아표본과 같은 다른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물대모형은 조직체에 대한 개념을 고안해 놓은 것이나 관찰될 수 있도록 된 장치의 부분이다. 실물대모형은 치아의 감각기관을 보여주는 실험에서 모형과 표본에 덧붙여 사용될 수 있다. 도표상의 형태로 치아의 머리부분, 신경, 신경설유 등을 보여줄 수 있다. 고안된 구조를 통해 감각충격을 추적함으로서 치통이 있을 때 무엇이 발생되는지 그라프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 시각자료의 장점은 학생들이 조절, 조작, 토의, 복습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탄탄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 학생들이 관찰하고 조절해볼 수 있도록 남겨둘 수 있다.

(라) 인형극(인간관계 영역에 관련된 전강문제를 조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극화한 것)

교육적 가치 :

- 실제 세계와 관련시킴으로써 자기이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역할연출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기회로서 실제 생활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삶의 활동을 학습으로 이끌 수 있다.
- 학습자의 상상력을 이용할 수 있다.
- 학급의 흥미를 이끌 수 있다.
- 학습자간에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제한점 :

- 교육목적의 성취보다는 단지 흥미를 끌 수도 있다.
- 교육목적을 성취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있다.

집에 있는 망가진 인형 또는 종이, 헝겊, 폐품등을 이용하여 인형 몇개를 만들어 인형극을 할 수 있다. 인형의 종류는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인형,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것, 막대기나 줄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것, 그림자 인형등이 있다. 인형극은 입체적이고 어린이 어른 모두에게 즐겁게 해주며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 내용에 알맞는 인형은 만들어 몇 사람이 함께 인형을 조작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어린이들도 인형극을 할 수가 있다.

인형극 공연은 극장의 초기 형태중에 있었으며 아직도 어린이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형형태의 우스꽝스러움과 다른 어느 연극형태 중 제일 작은 얘기와 같은 크기이기 때문이다. 인형극이란 그 속에서 어린이를 자신이 자신을 정립하는 작은 얘기라고 생각한다. 인형극 제작은 하나의 예술이지만 아이들이 알고 사랑하는 대부분의 인형과 놀이감들은 기술있는 교사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인형극은 구강보건의 사실과 이념을 전하기 위해서 말과 활동을 사용하여 이용되는 강의의 한 형태이다. 어린이들은 인형을 실제 사람은으로 믿으며, 인형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인상에 끊을 잊게 될 것이다. 인형극을 통하여 치아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즉 언제 칫솔질 해야하는지 혹은 칫솔질을 계율리하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 등을 국화하여 재미있게 묘사하면 아이들은 인형을 하나의 실제 인격체로 생각하게 몰아넣는다.

(마) 심리극, 역할극

연극적 경험의 또 다른 한 형태이다. 이 극의 형태들은 원칙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자기표현을 통한 정서적 원화의 치료적 가치는 널리 알려져 있다.

아이들이 구강상태가 나쁘거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형성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 아이로 하여금 그 자신이 불쾌했던 치과적 경험을 연출하게 하고 긴장이 지난후에 그 사실에 대해 토의하게 하는 것은 치과의사 및 기구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훌륭한 방법이다. 이 상황에서 아이와 교사(혹은 치과위생사)는 실제적 경험을 이용할 것이다. 만일 이 상황이 적절히만 조절된다면 어느 정도 이 아이는 그 전의 불쾌했던 태도가 동의할 수 있는 반응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 응판(응으로 덮여있는 판에 물체, 도표, 사진, 글자, 기호등을 붙여서 사용한다.)

교육적 가치 :

- 만들기에 편리하며 오래동안 사용할 수 있다.
 - 만드는데 돈이 적게 든다.
 -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며 가볍고 보관하기가 쉽다.
 - 어느곳에서나 특별한 장비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용판 화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어떠한 교육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교육이 끝날때는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다.
 - 어느 연령층에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 시청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 제한점 :
-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없다.
 - 용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은 용판의 그림을 볼 수가 없다.
 - 용판에 그림을 볼일때 바람이 불거나 벽이 팬판하지 않을 경우 그 그림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 보판을 잘 하지않으면 그림이 없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각 그림에 번호를 적어 놓으면 좋다.
 - 외교육자들그 성숙 정도에 적합치 못하거나 혹은 교육목적에 관계없는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용판은 중요점이나 사실을 접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강의나 토의중에 사용될 수 있다. 혹판과 비슷하나 상당한 준비를 필요한다. 판은 사용될 특별상황에 맞게 크기와 형태면에서 고려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단일 이동성이 있어야 한다면 크기나 형태가 방에서 방으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겨질 때 옮기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림, 삽화같은 것들을 자의대로 부치고 떠고 할 수 있으며 몇번이고 사용할 수 있다. 베니야판에 용을 펼쳐 부쳐서 용판을 만들거나 벽에 용천을 펴서 부쳐도 된다. 사용될 그림 글자 기호등의 판판한 종이 뒷면에 용조각을 부쳐서 용과 용끼리 붙게 된다. 용판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젤을 사용해도 좋다. 용판의 색깔은 용판에 놓여질 재료와 대조를 이를 수 있는 명쾌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두운 색상은 안정되어 보이나 쾌감이 덜하고, 밝은 색상은 그림속에 혼합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용판은 하나의 배경이므로 너무 대조를 이루거나 색찰이 너무 밝거나하여 그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판은 특히 구강보건에 관련된 영향을 가르치는데에 유용하고. 식품의 색칠된 그림은 아이들에게 특별히 매력적이다.

용판사용시 고려점 :

(1) 간단할 것

- (2) 용판그림은 사전에 자세히 계획되어야 하며 말하는 도중 정확한 장소에 붙여져야 한다. 또한 다음 차례의 용판그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

에 번호를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3) 모든 용판그림은 시작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잘 위치해 놓는다.

(4) 용판에 용판그림을 볼일때 손바닥 전면을 사용하여 그림 전 면이 잘 부쳐지도록하여 설명도중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5) 그림은 쉽게 인지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사전에 검사해보는것이 좋다.

(사) 혹 판

혹판을 사용할려면 명확한 기술과 어느 정도의 예술적 기술이 요구된다. 구강보건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자유스럽게 그림을 그릴줄 알며 혹판에 예화를 그릴 장치를 갖고있지 않으면 다른 시각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혹판은 주로 상징적인 것, 단어, 숫자, 여러형태의 선등을 보여주는는데 사용된다. 예화가 사용되어 지려면 잘못된 개념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해 아주 정확히 재생시킬 시간을 요구한다. 예를들면 치아의 외형과 여러 구조를 보여줄려고 한다면 미리 두꺼운 종이에 치아의 형태가 뚫린 견본을 혹판에 대고 혹판지우개로 구멍 뚫린 곳을 문질러 놓으면 혹판에 전사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의중 교육자는 강의전 혹판에 해놓았던 형태를에 명확히 선을긋고 적절한 곳에 색분필을 사용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첨가한다.

혹판을 사용할 때는 모든 학습자들이 혹판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것이 좋다. 동시에 혹판에 너무 많은 자료를 기록하면 학습자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혼동을 일으키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자료를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혹판에 쓰는것은 시간이 상당히 소비되므로 되도록 판서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아) 포스터

교육적 가치 : 이미 관심있는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하며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제한점 : 관심이 없는 사람은 스쳐지나가 버릴 수 있다.

포스터는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기관에서 구입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구강보건교육에 시간전 자료로서 중요하다. 포스터는 각처에 있다. 창문, 광고계시판등에 부쳐지며 대다수인에 강한 영향을 준다. 정부기관이나 기타 다른 보건단체 중에서 포스터를 생산해내고 있다.

포스터는 동기를 이끌어 내는것으로 사용된다. 또한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활동으로 이끌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다. 즉 포스터를 보고 자기 행동을 고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대중을 자극하는 말이나 그

립등을 결들여서 표현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좋은 포스터를 창작해내는 것은 결코 우연하게 되는 일이 아니다.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포스터는 다음의 몇 가지를 갖춰야 한다. 목적에의 적합성, 유쾌한 충격, 한 단음으로서의 완전성, 단순성, 활자의 명료.

포스터의 집중력은 크기와 위치, 지면배정에 따라 상당히 영향력을 받는다. 단어나 예화의 배치는 매력 점 한 가지 주요 면만을 보여줘야 한다. 그림은 주의 를 끌고 전언으로 눈을 이끌고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 하나의 관심점에서 다른 관심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색갈, 디자인, 내용의 배치가 균형잡혀져야 한다. 흰 공간이나 배경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 좋다. 포스터는 한 가지지만 알려야 한다. 디자인과 색조의 단순성은 유쾌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관심을 갖고 계속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주제와 색같이 유사해야 한다. 즉 유쾌한 주제는 따뜻한 느낌의 색같이 필요된다. 주황이나 주색이 색상에 큰 힘을 갖고 있으며 어떤 형태에서도 자유롭게 사용되어진다. 여러가지고 사용되어져야 할 때는 색갈선택에 있어 조화가 중요하다. 색갈의 대조는 유쾌한 것이어야 한다. 즉 똑같은 가치의 색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각기 대조적이라면 이것 또한 깊이 감동시킬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초록색에 빨강, 파랑에 빨강 등이 똑같은 밀도로 사용될 때 나타날 수 있다.

포스터에 글귀를 넣는 것은 집중시키고자 하는 대상자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버스나 기차역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포스터는 글귀가 길어도 되겠지만 반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짧은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포스터에서는 전달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글귀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7개단어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포스터 제작시의 주의점

(1) 구상을 결정한다. 이 구상은 양성적인 생각이어야 하며 단순한 생각으로 집중하도록하고 그 구상을 단순히 간단히 명확히 표현하도록 한다.

(2) 결정된 구상에 대한 좋은 그림을 생각해내고 호감있는 색갈을 선정하며, 그림을 넣을 가장 적절한 위치를 결정한다.

(3) 그 그림에 맞게 배경을 선정한다. 즐거운 느낌의 색조이며 중간색을 선정한다.

(4) 글자는 주요 형상과 잘 어울리는 색갈을 고른다.

(5)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씨를 사용한다(3m의 거리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쓸 것).

(6) 뒷 배경의 여유를 많이 남겨둔다.

(7) 포스터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5cm 정도가 적당하다.

(자) 계시판(도표자료를 보여주는 장치로 학생들의 흥미나 연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교육적 가치 :

—흥미를 일으키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진강의 양상을 도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학습에 대해 도움이 되는 환경조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보다 철저한 연구와 과제를 위한 요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조장 할 수 있다.

제한점 :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산란해 질 수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교사 중심이 될 수 있다.

—자료가 너무 많은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판계없는 자료나 정보가 붙어있을 수 있다.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 있다.

계시판은 지역사회자산으로서, 보통 벽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며 판의 재료만 정규적으로 바뀌면 된다. 계시판은 시각자료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하나일 수도 있다. 이것은 교육자로 하여금 피교육자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며 피교육자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서 그룹으로 활동하게도 만든다. 계시판 없는 치과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구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구강보건 교육자는 개인의 구강위생에 흥미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고안을 이용해야 한다. 아이들의 치아가 겸사되고 있는 동안 그 아이는 자신이 볼 수 있는 범위내에 놓여진 계시판을 읽고 관찰할 시간이 있게 된다. 적절한 내용은 흥미와 관심 있는 그림과 함께 그 계시판을 활동력 있게 만든다.

계시판 제작의 원칙은 포스터 제작의 거의 같다. 만약 피교육자들이 계시판을 새로운 소식의 매개체로 사용한다면 틀에 잡힌 배열은 잘 되지 않겠지만 피교육자의 흥미는 더 를 것이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계시판은 구강보건교육을 다른 과목과 같은 비율로 배당하여야 한다. 구강검사 계획을 계시판을 활용하면, 이 정규적인 검사기간 이전에 학생들이 이미 구강치료를 끝내고 오기도 한다. 이러한 암시의 효과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가끔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차) 전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한 방법으로서 전시회를 이용하는 것은 때로는 성공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성공과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전시회에 놓여진 전시품들이 전할려고 하는 아이디어의 수가 좌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주제에 여러 재료들을 전시해 놓은 것은 관람자로 하여금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주제에 대해 강의를 받는 학생의 상태와 같은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이것은 혼동을 일으키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이 전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만일 전시회가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한가지 단순한 주제에 집중해야 하며 중요점을 지시해주기 위한 시각자료를 주제와 관련시켜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어느 전시회에서든지 한 관람자가 보낼 수 있는 평균시간은 5~7분 정도가 좋다.

전시에는 주로 2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상황에서 학생이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인 혹은 상업기관에 의해 준비되는 것이다. 치과 의사회,

치과위생사협회, 구강보건협회 등의 전문단체에서 임대 혹은 무료 혹은 소액지불방법 등으로 전시회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전시는 실제 믿을만하며 전시장건설에 있어 전문가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 전시방법을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관람자가 공부하기 위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에 전시되어져야 한다. 전시된 곳 주위에 관람할 공간이 충분히 있으며 조명이 잘된 곳에 전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보통 도서관이 잘 이용된다. 전시기간이 짧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 체육관, 교실, 창고등이 전시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시방법을 구강보건교육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 교육자가 전시장의 구조와 내용에 완전히 익숙해야 한다. 피교육자는 전시를 치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습이 영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전시에서 내포된 개념을 자가화 하기 위해 전시에서 보았던 것에 대한 토의, 검토,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D.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추진

협조기관	피교육자(우선순위별)	접근방법
치과대학	1. 유치원 및 국민학교의 교사 및 직원	—교사 연수 교육
치과의원	2. 유치원 및 국민학교 학생	—교육대학 교과과정에 포함
보건소	3. 국민학교 학생의 학부모	—모자보건사업과의 연결
치과의사회	4. 지역사회 지도자, 일반주민	—교육자료의 제공
치과위생사협회		—지역별 상수도 불소화 사업
구강보건협회		—농촌지역 학교 상수도 불소화 사업
적십자사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학교신체검사 결과 구강치료 요구자에 대한 관리
		—차모회 모임시 교육
		—대중 매개체 이용
		—지역사회 보건사업 요원을 통한 작업
		—반상회, 4-H클럽, 농촌개발회, 지역총회 같은 모임에서의 교육
		—구강보건 자문

Ⅲ. 요약 및 결론

교육자는 피교육자의 학습을 위하여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종래의 교육방법은 교육자가 그의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이 피교육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서는 교육자는 조력자로서의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피교육자들에게 바라

는 건강행위를 하도록 학습경험을 조직하고 교재를 제작 활용하고 토의할 질문을 만들게 되었다. 즉 어떤 교육자들은 그들自身 모든 것을 다 말해줌으로써 잘 가르쳤다고 느낄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교육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인이라고 까지 보건교육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왜냐

하면 교육자 중심의 일방적 강의식은 학습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으므로이다.

그리므로 학습자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활동의 교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교재선택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건강교육 분야에서 구강보건내용을 선정하여 구강보건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재들을 그들의 가치성과 제한점, 사용시 주의점 등을 설명하고 교재에 따른 활용될 수 있는 세부내용등을 연구검토해 보았다.

연구된 활동들은 포스터, 인형극, 계시판, 전시회, 실험, 흑판, 응판, 실리극 역할극, 현지견학, 모형 실물대모형이다.

참 고 문 헌

1. 김명호 : 학교보건 및 실습, 서울, 수문사, 1980.
2. 김종배 : “학교구강보건교육적 측면에서 본 학교불소용액 양치사업”,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1) : 111~112, 1983.
3. 김주환 외 3인 : 구강보건학, 서울, 고문사, 1979.
4. 남철현 : “동남아 제국의 보건교육현황”,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1) : 115~119, 1983.
5. 한국구강보건협회 :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보고.
6. 채범석 외 2인 : 보건영양,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국제연합아동기금, 1982.
7. Alan, C. Hoimes : *Health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Thomas Nelson, 1964.
8. Carl, E. Wilgoose : *Health Teaching in Secondary Schools*, Saunders Co, 1977.
9. C.L. Anderson, William H. Creswell : *School Health Practice*, St. Louisa. The C.V. Mosby Co, 1980.
10. Donald A. Read., Walter H. Greene : *Creative Teaching in Health*, New York, Macmillan Co, 1975.
11. Frances A. Stoll : *Dental Health Education*, Philadelphia, Lea & Febiger, 1957.
12. F.R. Abbatt : *Teaching for better learning*, W.H.O., 1980.
13. Frazier, P.J. : *A New Look at Dental Health Education in Community Programs*, *Dental Hygiene* 52(11) : 535, 1978.
14. Friedman, L.A. : *Impact of Teacher Student Dental Health Education*, *J. School Health*, 44 : 140, 1974.
15. Jane, L. Forrest., Mary Burno Sheridan : “Dental Health Education,” *Dental Public Health and Community*
16. Dentistry, St. Louis : *The C.V. Mosby Co*, 1981, pp. 121-143.
17. L. Ann Voigt : “*Health Worker Training Course*.” Contact, No. 78, Geneva, CMC, 1984.
18. Monica Byrne, F.Z. Bennett : *Community Nursing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Oxford Univ Press, 1978.
19. Smith L.W., and others : *Teachers in programs for school dental health; an evaluation of “The Toothkeeper”*, *Public Dent.* 35(2) : 75, 1975.
20. World Health Organization : *Dental Health Education*, Technical Report Series, No. 449, Geneva, 1970.